



1920년대, 이 시기 문학은 근대문학의 도입이 시작된다.

문화 통치에 맞선 저항의 시대로 이 당시 문인들은
일제의 침략으로 위축되었던 문학계가 활기를 띄게 된다.

이 시기에 충북 대표문인으로 민족문학의 선구자 포석 조명희와
문학에서 미술까지 넘나드는 종합 예술인 권구현,
그리고 민족 고유의 정서를 확립한 「임꺽정」의 벽초 홍명희가 있다.

애국계몽 의식과 은유와 상징의 서술기법이 특징인 홍명희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벽초 홍명희는 매우 독특한 존재이다.

홍명희는 결코 직업적인 문인이 아니었고, 그가 남긴 소설도 「임궏정」 단 한 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희는 한국 근대 소설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작가로 간주되고 있다. 홍명희의 생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민지 시기 신간회 운동과 해방 직후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포함한 민족 운동가로서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홍명희의 삶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다 보면 문인으로서의 활동은 지엽적인 위치로 밀려나기 쉽다. 최남선·이광수와 함께 『소년』지에서 활동하면서 '조선 3재(三才)'로 불리던 신문학 초창기부터 월북 이후에 이르기까지 홍명희는 문인으로서 활동했다. 또한, 일제하 민족운동의 지도자격인 인물이었으며 『조선일보』에 10여 년에 걸쳐 연재된 당대 최대의 장편 역사 소설인 「임궏정」으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8.15광복 후에는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다 월북했다.



01 벽초 홍명희의 출생 : 1888-1900 / 1-12세

구한말 명문 사대부가의 장손 홍명희

한국 근대 작가들 중 벽초만큼 화려한 가문을 가진 사람도 드물다.

홍명희는 1888년 음력 5월 괴산 인산리에서 홍범식과 은진 송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홍명희의 가문은 풍산 홍씨 추만공파로서, 노론에 속하는 명문 사대부가였다. 홍명희는 당시 양반가의 자제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어린 나이에 한학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다섯 살 되던 해에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여덟 살 되던 해에 『소학(小學)』을 배우고 한시 짓는 법을 익혔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홍명희는 비상한 기억력과 뛰어난 문재(文才)를 드러내었다.



벽초 홍명희의 출생

괴산 인산리 한말 명문 사대부가의 장손 홍명희

02 서울과 동경에서 받은 신교육 : 1901-1909 / 14-22세

14세 때인 1901년 상경하여 이듬해부터 1905년까지 중교의숙(中橋義塾)에서 신학문을 공부하였다. 1906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대성중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이 시기 홍명희는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독서를 하는 한편, 문일평, 최남선, 이광수 등과 친밀한 교우를 맺었다.

그러나 유학 시절 홍명희는 심한 민족적 차별을 경험하였다. 당시 조선은 을사조약 이후 급속히 일본의 식민지 상태로 전락해 가고 있었다. 이에 따른 민족적 울분으로 인해 홍명희는 상급 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910년 초에 귀국하기에 이른다. 귀국 직후 홍명희는 최남선이 창간한 『소년』 지에 폴란드 시인 니에모예프스키의 시 「사랑」을 비롯한 작품들을 발표하며 초창기의 신문학 운동에 일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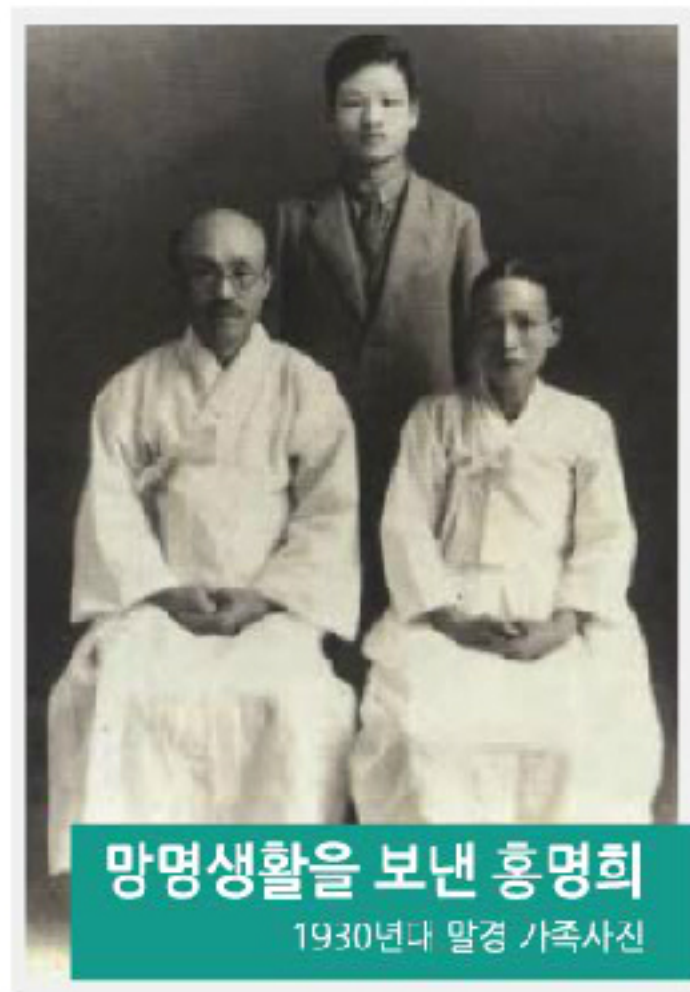


신문학 운동에 일조

대한제국시기의 홍명희 일가

03 남양에서 보낸 망명 생활 : 1910-1918 / 23-31세

1910년 8월,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함과 동시에, 그에 항의하여 부친 홍범식이 순국하였다. 이 사건은 평생에 걸쳐 홍명희의 사고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친의 3년 상이 끝난 뒤인 1912년 말경 홍명희는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 운동에 투신하였다. 상해에서는 신규식, 박은식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동제사(同濟社)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시절에 홍명희는 정인보·문일평·조소앙·김규식 등과 동고동락하면서 깊은 교분을 맺었으며, 특히 단재 신채호와는 평생 지기(知己)로서 막역한 우정을 쌓았다. 1914년에 벽초는 독립 운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남양으로 떠나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다가 1918년 귀국하였다. 홍명희는 수년 전 상하이 시절에 이어 북경에서의 만남을 통해 신채호의 학식·재능·사상과 인간됨을 정확히 파악하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으나 평생 서로를 존중하며 경애하는 벗으로 함께하였다.



04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의 정치활동 : 1923-1932 / 36-45세

홍명희는 36세인 1923년에 신사상 연구회의 창립 회원으로 가담했으며, 그후 화요회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 단체뿐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조선 사정 조사연구회에도 참여하였다. 1925년 4월, 홍명희는 시대일보사로 자리를 옮겨 편집국장·부사장·사장직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홍명희는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 간의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新幹會)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창립 대회에서 홍명희는 신간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직위인 부회장에 선출되었으나 굳이 사양하고, 조직부 총무 간사직을 맡아 지휘 결정을 비롯한 주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다. 1929년 신간회 지도부가 광주학생사건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사전 검거되었을 때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구속되었으며, 3년간의 수감 기간 후 출옥하였다.



05 대하 역사 소설 『임꺽정』의 집필과 발표 : 1928 - 1941 / 41-54세

신간회를 위해 한창 활동하던 1928년 11월 21일부터 홍명희는 대하 역사 소설 「임꺽정」을 『조선일보』 지상에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그는 무려 13년에 걸쳐 「임꺽정」 연재를 몇 차례 중단했다가 계속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차 연재: 『조선일보』, 1928.11.21 ~ 1929.12.26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

-투옥으로 인해 제1차 장기 휴재(休載)-

제 2차 연재: 『조선일보』, 1932.12.1 ~ 1934.9.4

「의형제편」

제 3차 연재: 『조선일보』, 1934.9.15 ~ 1935.12.24

「화적편」 ‘청석골’장

-신병으로 인해 제2차 장기 휴재-

제 4차 연재: 『조선일보』, 1937.12.12 ~ 1939.7.4

「화적편」 ‘송악산’장부터 ‘자모산성’장의 서두까지

-신병으로 인해 제3차 장기 휴재-

제 5차 연재: 『조광』, 1940.10

「화적편」 ‘자모산성’ 장의 일부

-미완(未完)으로 중단-

05 대하 역사 소설 『임꺽정』의 집필과 발표 : 1928 - 1941 / 41-54세

제 2차 연재가 시작된 1932년 이후 홍명희는 「임꺽정」 집필에 몰두하였다. 그래서 1930년대는 홍명희의 작가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선어와 조선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홍명희는 독자 대중에게 야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사, 특히 조선의 민중사에 대한 흥미로운 읽을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계몽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이는 유년시절 이래 한학 수업과 광범한 독서를 통해 조선의 역사와 풍속·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남다른 조예를 지니고 있던 그에게 매우 적합한 과제였던 셈이다. 또한 홍명희는 「임꺽정」 연재 기간에는 물론 휴재 기간에도 『조선일보』와 그 자매지인 『조광』에 문학 평론·논문·칼럼·대담 등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임꺽정』의 집필과 발표
임꺽정 출판광(1939)와 1930년대 홍명희 일가

06 해방 직후 정치 활동의 재개 : 1940-1948 / 53-61세

1941년까지 13년에 걸쳐 연재 되었던 『임꺽정』이 단행본(4권)으로 간행됨으로써, 홍명희의 작가적 명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일제 말의 암흑기에 지조를 지키며 은둔 생활을 하던 홍명희는 감격의 해방을 맞이하여 사회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1945년 말 홍명희는 서울신문사 고문에 취임했으며,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장, 조소(朝蘇)문화협회 회장,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좌익 단체의 지도자로 추대되는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 대회’ 부회장,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상무위원 등 우익 단체의 요인으로도 선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감투들은 대개 좌우 양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씌워진 것이었으므로, 홍명희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동안 칩거하였다. 그러나 좌우익의 대립이 날로 격화됨을 우려한 나머지 중간파 정치세력의 결집에 나서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민주통일당 창당을 준비하다가 이를 포함한 중도우파 5개 정당을 통합하여 1947년에 민주독립당을 창당하고 당 대표로 취임하였다.



민주독립당을 창당하고 당 대표로 취임

1948년 을유문화사에 간행된 임꺽정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의 홍명희

07 선비 정신의 소유자로 북에서 보낸 만년 : 1948-1968 / 61-81세

1948년부터 1962년까지 홍명희는 북에서 내각 부수상직을 연임했으며, 이후 사망 때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밖에도 그는 과학원 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향년 81세, 1968년 3월 5일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벽초 홍명희 문학비

(순서대로)홍명희와 김일성(1958)/홍명희의 묘/벽초 홍명희 문학비

작가연보

- 1888** 7월 3일에 충북 괴산군 괴산면 인산리(현 동부리)에서 홍범식(본관풍산)과 은진 송씨의 장남으로 태어남.
- 1890** 모친 은진 송씨가 별세하였고 이듬해에 한양 조씨가 계모가 됨.
- 1898** 다섯 살에 「천자문」을 떼고 여덟 살에 「소학」을 배운 뒤, 이 해부터는 「삼국지」를 비롯한 중국 소설을 탐독함.
- 1900** 참판 민영만의 딸인 여흥 민씨와 결혼.
- 1901** 이 해에 서울로 올라가 이듬해에 증교의숙(中橋義塾)에 입학.
- 1903** 장남 기문이 출생.
- 1905** 증교의숙을 졸업하고 귀향하여 일본인 부부에게 일본어 회화를 배운 뒤, 동경유학을 떠나 문일평, 이광수 등과 관계를 맺음.
- 1906** 동경상업학교(東京商業學校) 예과 2년에 편입하였고 최남선과 교류.
- 1907** 동경 대성중학교(大成中學校) 3학년에 편입한 뒤, 서양 및 일본의 근대 문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책을 섭렵함.
- 1910** 2월에 졸업 시험을 앞두고 귀국. 8월 29일에 충청도 금산 군수였던 부친이 순국하였으며, 이 해에 차남 기무가 태어남.
- 1912** 집을 떠나 거울에 만주 안동현에서 머무름.
- 1913** 정인보와 함께 상해로 가서 박은식, 신채호, 문일평, 조소앙 등과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同濟社)에서 활동.
- 1914** 11월에 정원택, 김진용, 김덕진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남양 이동함.
- 1915** 3월에 싱가포르에 정착하여 2년 뒤인 1917년 12월까지 머물면서 활동.

작가연보

- 1918** 상해와 북경에 머물면서 신채호와 다시 만나 돈독한 정을 나누었고, 7월에는 귀국하여 고향 괴산에서 장남의 공부를 가르침.
- 1919** 3월 19일 괴산에서 자필 독립선언서를 반포하고 만세 시위를 주도하여 체포된 뒤, 4월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가족들은 인산리 생가를 팔고 계월리 365번지로 이사를 함. 5월에 경성(서울)의 복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6월에 경성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함.
- 1920** 4월에 감형되어 청주형무지소에서 출감하였으며, 이후 정인보와 전라도 내장산 일대를 여행.
- 1921** 쌍둥이 딸 수경과 무경이 출생.
- 1923** 중등학교에서 개최된 조선에스페란토협회 주최 에스페란토 강습의 강사가 된 후 이 무렵 조선도서주식회사 편집부에 근무하였고, 7월에는 사회주의 사상 단체인 신사상연구회의 창립 회원 됨.
- 1924** 5월에 『동아일보』의 취체역 주필 겸 편집국장에 취임하여 같은 신문에 「학창산화(學窓散話)」를 연재하였으며, 11월 신사상연구회가 화요회로 개편한 뒤에도 계속 간부로 활동.
- 1925** 신채호의 요청으로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 사건」등을 연재하였고 4월에 동아일보사를 그만둔 뒤 『시대일보』로 옮겨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그 신문에 「학등(學燈)」을 연재함. 9월에는 학술 단체인 조선사정조사연구회 결성에 참여.

작가연보

- 1926** 카프(KAPF)의 기관지인 「문예운동」 창간호(1월)에 「신흥문예의 운동」, 2호(6월)에는 「예술 기원론의 일절」을 실었고 3월에 「시더일보」 사장이 되었으나, 이 신문은 8월에 휴간한 뒤 복간되지 못함. 한편 4월에 정우회에 참가하였고 10월에 정주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바로 앞 달에는 그 동안에 쓴 글을 모아 「학창산화」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냈었고 이 해에는 막내 딸 계경이 출생.
- 1927** 2월에 신간회가 창립될 때 부회장에 선임되었으나 고사하고 조직부 총무 간사직을 지낸 뒤 오산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전국 각지의 신간회 지회 설립 대회에 다니면서 지원 활동 함.
- 1928** 10월에 제 4차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다가 불기소로 풀려난 뒤, 11월 21일 「조선일보」에 「임꺽정」을 연재를 시작.
- 1929** 잡지 『삼천리』 창간호(6월)와 2호(9월)에 「자서전」의 일부를 연재. 6월에 신간회 복대표 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활약하였으며, 12월에는 신간회 주최로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가 검거되었고, 유치장에서도 『임꺽정』 연재를 계속하던 중 12월 26에 ‘양반편’까지 연재.
- 1930** 신간회 민중대회 사건으로 1월에 기소되어 9월에 예심이 종결되었으며, 이듬해 4월에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1932** 1월에 가출옥으로 감옥에서 나와 아우 홍성희와 함께 재동에서 정미소를 경영하였고 12월에는 다시 「조선일보」에 「임꺽정」의 ‘의형제편’ 연재를 시작함. 그로부터 2년 뒤인 1934년 9월에 ‘의형제편’ 연재를 끝내고 ‘화적편’ 연재를 시작.
- 1935** 신병으로 금강산 등지를 다니며 요양하였으며, 12월에 「임꺽정」 ‘화적편’의 ‘청석골’장을 마치고 연재를 중단.
- 1937** 12월에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임꺽정 ‘화적편’의 ‘송악산’장 연재를 시작.

작가연보

- 1939** 7월에 「임꺽정」 '화적편'의 '자모산성'장의 처음 부분만 발표한 뒤 연재를 중단하였다가 이듬해 10월에 『조광』에 '자모산성'의 일부를 실었다. 이후 「임꺽정」은 더 이상 연재되지 않아 완결편이 없음.
- 1945** 9월에 에스페란토 조선학회 위원장에 추대되었고, 11월에 서울신문사 고문에 취임. 또 12월에는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장과 조소문화협회 회장에 추대됨.
- 1946** 1월에 간행된 『대조』 창간호에 이태준, 이원조, 김남천과 대담한 「벽초 홍명희 선생을 둘러싼 문학담의」가 실렸으며, 2월에는 조선문학가동맹 주최의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에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인사말씀」을 보내어 이태준이 대신 읽음. 한편 8월에 민주통일당 제1회 발기회에 참가하였고, 12월에는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선거에서 관선의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사양함.
- 1947** 장남 흥기문이 펴낸 『조선문법연구』의 서문을 씀. 10월에 민주통일당 등 5개당이 통합한 민주독립당의 당수가 되었으며, 12월에는 민족자주연맹 결성에 참가하여 정치위원으로 선임.
- 1948** 을유문화사에서 「임꺽정」을 6권(의형제편 3권, 화적편 3권)으로 간행하였고 4월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가한 뒤 북한에 남았고, 8월에는 서울의 가족들도 평양에 도착. 같은 달에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제1기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었으며, 다음 달에 김일성이 수상으로 임명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차 내각에서 박헌영, 김책과 함께 3인의 부수상 중 한 명으로 임명.
- 1949** 2월부터 4월까지 북한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소련을 방문.

작가연보

- 1953** 과학원장에 임명되었고, 11월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
- 1955** 평양의 국립출판사에서 「임꺽정」 6권이 간행.
- 1956** 과학원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되었고 이듬해 8월에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으로 피선되었으며, 그 다음 달에 북한 제2차 내각에서 6인의 부수상 중 한 명이 되었고, 또한 이 해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 1958** 국기 훈장 제1급을 받았고, 이듬해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을 수행하여 소련을 방문한 뒤에 귀국하면서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
- 196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이듬해 10월에는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뽑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 1967** 11월에 제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어 다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 1968** 3월 5일에 노환으로 별세하여 평양 교외의 애국 열사릉에 묻힘.